

brilliant memories: artwork by 김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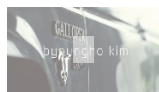
갤로퍼, 그리고 청춘



여덟 개의 프레임

김병호는 1993년 출시되었다가 2003년 단종된 현대자동차 SUV 갤로퍼로 육중한 기념비를 하나 제작했습니다. 그는 사진작가 김찬홍의 자동차에서 8장의 유리를 모두 떼어낸 후,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그것을 수직적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김병호는 한 사진작가가 산악 사진을 찍으려 20년간 타고 다녔던 갤로퍼를 폐차장에 보내려는 찰나에 개입해, 그 상황을 역전시키기라도 하듯 기념비적인 <여덟 개의 프레임>을 제작했습니다. 평소 김병호는 조각과 설치작업을 통해, 주로 모듈, 시스템, 규칙, 구조, 조직 등 합리적 메커니즘에 기반한 생산 과정에 주목해왔습니다. 또한 그가 이름 붙인 ‘모뉴멘탈 프로젝트’에서는 콘크리트로 만든 거대한 틀 안에 마치 박제하듯 자신의 작품을 묻어두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덟 개의 프레임>에는 작가의 관심사가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 유리 8개를 철근과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 고정시켜놓은 형식은 ‘모뉴멘탈 프로젝트’에 따른 것이고, 세계를 관찰하는 프레임으로써의 창문은 그의 작업에 반복해서 나타난 체계적 구조와 질서정연한 규범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김병호의 <여덟 개의 프레임>은 낡은 자동차를 매개로 어느 중년 사진작가의 사적인 기억을 기념합니다. 사진가가 평생 차창으로 바라본 세계와 그것을 화석처럼 기억하고 있는 오래된 사진들에 대한 일종의 작은 경의입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 차를 몰고 전국을 돌아다닌 사진가에게 차창 유리는 어쩌면 카메라 렌즈보다 앞선 시각 프레임을 만들어줬을지 모릅니다. 때문에 김병호는 폐차를 앞둔 갤로퍼에서 사진가의 망막과도 같은 8장의 유리를 떼어내 그 사사로움을 기념했습니다. 이 여덟 개의 투명한 프레임은 사실 텅 빈 제단처럼 아무것도 기념하지 않는 것 같지만, 육중한 콘크리트에 둘러싸인 투명한 유리는 한때의 역동적인 순간에서처럼 시시각각 변화하는 빛과 형태를 여과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결국 <여덟 개의 프레임>은 한 개인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적·인식적 틀을 조명하면서, 동시에 그것에 대한 개인을 넘어선 공동의 기념을 이끍니다. 글 · 안소연



[brilliant memories] 작가 김병호 인터뷰 & 메이킹

사연 소개



카메라로 프레임을 보듯, 갤로퍼의 창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사진작가는 갤로퍼와의 20년을 추억으로 간직하려 합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라면 오지 탐험도 마다하지 않았던 주인을 만나 갤로퍼는 강원도부터 해남 땅끝마을까지 전국 곳곳을 다니며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험한 곳이라도 갤로퍼와 함께라면 사진작가는 참 든든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고동락한 식구나 다름없었던 갤로퍼를 떠나 보내며 사진작가는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작가 김병호



작가 인터뷰

사연을 듣자마자, 바로 8개의 자동차 유리창을 활용해야겠다 싶었습니다. 20년 동안 사진작가와 동고동락했던 8개의 프레임에 주목했습니다. 자신과 험한 곳을 왔다갔다하며 지낸 과거의 프레임을 보고 사진 작업을 진행하는데 자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작업이 초심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필

현대의 모듈화되고 단위화, 조직화 되는 시스템 요소를 구축시키는 작업 활동을 해온 김병호는 홍익대학교 판화과와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영상공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아라리오 갤러리, 소마미술관 등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가졌고, 런던 사치갤러리, 아라리오미술관 개관전을 포함해 APMAP 2014, 청주 국제비엔날레 등 다수의 국제미술제에 참여했습니다.